

미 대선 2주앞 경찰 초비상...“칼날 위 걷는 듯”

우편투표 늘고 트럼프 불복 시사 폭동 등 극심한 혼란 예상 투표소에 경찰 배치 방안 논란 FBI, 56개 지부에 선거지휘소

미국 대통령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 오면서 선거일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사법 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NBC방송은 “올해 선거는 극심한 분노와 사회불안 속에 치러져 투표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들이 초유의 압박을 받는다”고 18일(현지시간) 전했다.

올해 미 대선은 전대미문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코로나19에 우편투표가 크게 늘면서 결과가 예년보다 늦게 나올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현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시시했다. 우편투표 때문에 부정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상황을 지켜보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사법당국은 선거일 전후 폭동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은 56개 지부 전체에 ‘선거 지휘소’를 설치했다. 정보를 신속하게 취합·공유하고 사이버공격을 비롯해 각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뉴욕경찰(NYPD)은 행정경찰을 포함해 모든 정복경찰에 이달 25일부터 시위대응 투입 대기를 명령했다. 로스앤젤레스경찰(LAPD)은 선거가 치러지는 주에 인력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근무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경찰관들에게 안내했다. 현장의 고민거리는 ‘무장한 민병대’다. 그러나 투표소 총기소유 관련 규정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최근 무장단체가 주지사 납치음모를 꾸몄다가 적발된 미시간주(州)는 법상 투표소에서 100야드(약 91m) 내엔 총기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지만 이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투표를 기다리는 유권자 주변을 총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을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투표소가 학교라면 상황은 더 복잡하

다. 학교의 경우 각 교육구가 총기소유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데 선거일 ‘투표소인 학교’가 학교에 해당하는지, 투표소에 해당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최근 미시간주 국무장관이 학교인 투표소를 포함한 모든 투표소 내 무기소지를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했지만, 차후 법원의 결정을 지켜 봐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경찰로선 정복경찰 다수를 투표소에 배치하는 것도 부담이다. 경찰배치가 유권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버지니아주 메리언카운티 존 클레이 경찰서장은 “투표소에 배치된 경찰이 늘어나면 유색인종 유권자가 투표를 단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경찰관들을 투표소에서 ‘잘 보이지만 떨어진 곳’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복경찰이 보이면 투표를 포기할 유권자를 겁주지 않으면서 무장한 난동꾼들의 위협 속에서 투표소 안전을 지킬 방안을 찾느라 몇 주를 썼다”면서 “면도날 위를 걷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다음 달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지아주에서 조기투표가 실시된 첫날인 12일(현지시간) 오거스타의 벨 오디토리움에 설치된 투표소 앞에 유권자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53〉 문천상

문천상(文天祥, 1236-1282)은 강서성 길수현 출신으로 자는 송서(宋瑞) 호는 문산(文山)이다. 남송말의 대표적 시인, 관리로 몽고의 원나라에 끝까지 저항해 죽음을 택한 대표적 애국지사다.

1255년 20세 진사시험에 수석 합격한 수재다. 그러나 재상 가사도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던 시절이라 소신을 펴지 못한채 지방관으로 근무했을 따름이다. 남송이 몽고의 침략으로 망국의 위기에 직면하자 그의 진가가 나타났다. 원나라를 세운 몽고의 쿠빌라이는 본격적으로 대남송 토벌에 나섰다. 남송 공략에 최대 걸림돌은 양양이었다. 1273년 정월 양양 주변의 변성을 함락해 양양이 고립되었다. 재상 가사도는

끝나지 않았노라.”

연경으로 압송되는 중 8일간 단식했으나 그만두었다. 단식과 같은 소극적 저항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송 신하의 기개를 보여주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장흥범은 문천상의 투항을 재촉했다. 원에 투항하면 재상의 자리를 계속 할 수 있다는 회유에 “왕조가 망하는 것을 신하로서 지키지 못했으니 마땅히 죽어야 할 죄를 저질렀다. 어찌 부귀영화를 바랄 것인가”라며 단호히 거부했다. 쿠빌라이는 감옥에 있는 그를 불러 원에 귀순할 것을 종용했다. 재상을 원한 재상의 위기에 직면하자 그의 진가가 나타났다. 원나라를 세운 몽고의 쿠빌라이는 본격적으로 대남송 토벌에 나섰다. 남송 공략에 최대 걸림돌은 양양이었다. 1273년 정월 양양 주변의 변성을 함락해 양양이 고립되었다. 재상 가사도는 나 호화로운 침상을 거부한채 맨바닥에

원나라에 저항 죽음 택한 남송말 시인·관리

원군을 보내지 않았고 결국 양양은 함락됐다. 수비 대장인 여문환은 원군을 보내주지 않는 남쪽의 조정을 향해 통곡했다고 한다. 이어서 약주(현 무장)를 함락시켜 양자강 상류를 차지하자 남송의 멸망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각지에서 의용군이 일어나자 문천상은 1만의 병사를 모아 수도 임안으로 달려갔다. 바안이 이끄는 원나라 군대는 상주를 함락시키고 항주성을 포위했다. 남송 조정은 항복하기로 결정하고 우승상 겸 추밀사인 문천상을 바안에게 보냈다. 바안은 그의 재주를 높이 사 원에 귀순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강제로 억류해 버렸다. 연경으로 호송되는 도중에 진강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계림라전을 계속하였으나 광둥의 조주에서 1278년 원의 장군 장흥범에게 체포되었다. 장흥범의 투항 권유에 “인생은 예부터 죽음을 피할 수 없거늘 오직 일편단심으로 역사를 비추리”라는 비장한 시로 남송에 대한 충성을 분명히 했다.

얕은채로 밤을 꼬박 지새웠다. 쿠빌라이는 동생 문벽과 폐제인 공종까지 동원해 전방위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그의 뜻은 요지부동이었다. 지하감옥의 토굴로 옮겨졌지만 기세가 꺾이지 않은채 영명정기(正氣歌)를 지었다. 2년 동안의 지하감옥 생활 중 병부상서를 지낸 왕덕옹이 중상이 되어 적극적인 구명운동에 나섰다.

1282년 12월 쿠빌라이는 그를 불러 마지막 설득을 하였으나 오직 죽음만을 원한다는 답만이 돌아왔다. 결국 시시라는 곳에서 처형되었다. 후일 사람들은 그곳에 문공상사(文丞相祠)라는 사당을 세워 그의 충절을 기렸다. 남쪽을 향해 절하고 죽음을 맞이하니 47세였다. 부인이 그의 시신을 수습했는데 그 얼굴이 살아있는 사람과 같았다. 쿠빌라이는 원이라는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문천상이라는 일개 선비의 의지와 기개를 꺾지는 못했다. 아마도 충을 강조한 송대 주자학의 선비 정신이 문천상의 결연한 저항 뒤에 자리잡았던 듯하다.

문천상의 처형을 지켜본 쿠빌라이 황제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진다. “옛날부터 천년을 이어간 왕조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도 언젠가는 저런 운명이 되지 않을런지요” 원나라는 백년도 채 안되어 1368년 명나라의 주원장이 의해 멸망했다.

장흥범은 애산으로 쳐들어가 1279년 2월 장제결, 육숙부, 어린 황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육숙부와 장제결 모두 익사했다. 그가 남긴 감유(憾有)라는 시에는 당시의 정황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물 건너 남해상에 이르니 시신이 흩어져 마치 삼(麻)과 같다. 남아 천년의 뜻, 나의 생은 아직

없다.”

日국민 절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요미우리 신문 조사 결과 50% '반대' 41% '찬성'

일본 국민의 절반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6-18일 전국 유권자 1051명(유효답률 기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배출수의 오염 농도를 법적 기준치 이하로 낮추어 방류하려는 것에 대해 41%만 찬성하고, 절반인 50%가 반대했다. 나머지 9%는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동일본대지진 9주년을 앞두고 있던 지난 3월의 같은 조사에선 다수인 68%

가 오염수 처분 방법에 대해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비해 이번 '해양방류 반대'라고 분명하게 의견을 내놓은 일본 국민 비율이 확연하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실상 해양방류 방침을 정해 놓은 일본 정부가 조만간 확정하는 절차를 밟으려는 움직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은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페로-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 회의'에서 정부의 해양방출 방침이 공식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의 용융된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섞이면서 오염수가 하루 160-170t씩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핵심인사 검거에도 커지는 태국 반정부시위

개개인이 SNS로 참여 도심 곳곳서 게릴라식 시위

“우리 모두가 지도부다”

쁘라웃 짬오차 태국 총리 퇴진 및 군주제 개혁을 외치고 있는 태국 반정부 시위가 핵심 인사들이 대거 검거됐음에도 기세가 더 커지는 양상이다.

태국 당국은 지난 15일 오전 4시를 계기로 '5인 이상 집회 금지'를 골자로 한 비상 명령을 발령한 뒤 반정부 시위 지도부를 대거 검거했다.

여기에는 군주제 개혁을 처음으로 공개 언급한 인권운동가 야는 남빠, 탐파삿대 반정부 집회에서 군주제 개혁 10개항을 발표해 파장을 일으킨 파누사야 시터짜라와 따나온 등이 포함됐다. 또 15일 랏차쁘라송 교차로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파노퐁 찻녹도 17일 밤 사복 경찰에 의

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개월간 반정부 집회를 주도한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검거된 셈이다.

그러나 17일에 이어 18일에도 도심 곳곳에서 경찰의 봉쇄를 피해 게릴라식 시위가 열렸다. 여기에는 각각 2만여명과 1만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된다. 시위 참석자들의 대다수는 10대나 20대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없이 대학 학생이나 민주 진영 단체들의 느슨한 연합 아래에서 개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참여하는 올해 반정부 시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최근 수년간 홍콩에서 진행된 민주주의 시위를 참고했다는 시각도 많다. 실제 17일 시위 예정 장소로 꼽혔던 아속 사거리 아속역에 모인 시위대 중 일부는 역사에 있던 이들을 향해 “우리가 지도부다”라며 구호를 함께 외치는 모습도 보였다. /연합뉴스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